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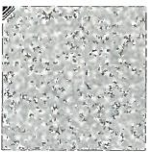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59호

2021년 9월 26일(나해)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민수 11,25-29

화답송 | 시편 19(18),8.10.12-13.14(◎ 9ㄱ)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

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 야고 5,1-6

복음환호송 | 요한 17,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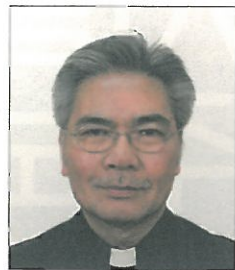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원고삼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온 교회와 함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하시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온 인류가 각각의 그룹이나 국가로 나뉘며 '우리'와 '다른 이들'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각자 그룹들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단순한 생존에 그치지 않고, 연대와 협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에 이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폄하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 '다른 이들'의 대립 구도에 빠져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막지 마라.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38-40)

아마도 제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한은 '우리' 대 '다른 이들'의 대립 구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 대 '다른 이들'의 관점이 아니라 '더 넓은 우리', 즉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의 나'라는 뜻으로 놀랍도록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던 중, 한 작은 수녀원에서 미사를 봉헌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 후 계단 아래에서 있었는데 어느 20대 젊은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제 팔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넘어지게 됐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같은 수녀원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됐을 때, 우연히 그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팔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자매는 저에게 "우리 아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ur baby!?" (우리 아기!?)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기적!? 그러다가 '우리 아기'는 '제 아기'를 뜻하는 한국식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한국 남성이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하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스페인어에서 '우리'를 뜻하는 단어는 'nosotros'입니다. 'nosotros'는 'nos'(우리)와 'otros'(다른 이들)의 두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분열에는 '우리' 대 '다른 이들이 있지만, 일치에는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님양성모성지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마르 9,39)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촛불이 되어 성모님 앞에 봉헌됩니다. 저 또한 간절한 마음 담아 촛불을 밝혀 봅니다. 부족한 제게도 성령을 보내시어 “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김연희 세라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 뜻을 달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배우가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품을 할 때면 그림을 그리던 이전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연기를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은 저로서는 더욱이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연기도 그림 그리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림이 빈 캔버스에 저를 담는 일이라면, 연기는 제가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지, 그래서 맡은 인물에게 어떻게 다가서서 담아낼지, 그만의 색을 찾아 카메라 앞에 서서 사람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로서 신앙을 갖는 것은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계속해서 꺼내어 쓰고, 내면으로 깊이 빠지다 보면 제 안의 균형이 자칫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와 특히 주일 미사는 호흡을 정리하고 다시금 튼튼한 걸음으로 세상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정리의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여러 모습의 삶과 제 안을 내밀히 들여다보며 연기하는 일은, 그 삶들에 진실하게 다가서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기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만났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부딪히는 그 과정을 마음 깊은 곳에서 즐기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연기라는 언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제 부족함을 안고도 작품 안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독님, 실장님, 스태프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에 저를 불러주시고 талан트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



송희준 아델라 | 배우

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닌 다른 진로로 가는 것이 무모하고 위험할까 주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막막함, 권태로움. 그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그네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 특히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명 한명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을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마다 어떠한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талан트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이 반응하고 즐거운지, 스스로에게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과감히 결정하고, 아낌없이 경험하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델라, 지혜는 기도 속에서만 생겨난단다.”

존경하는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매일 아침 기도 때마다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의 향해는 어떠신가요? 무한히 넓고 끝없이 깊은 바다 위의 이 여정이 두렵거나 막막할 때에도, 한없이 다정하고 편안할 때에도 서로의 작은 뜻단배들을 아끼며 이 여정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김선중 미카엘라
면목동성당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

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15년(국내 개봉 2021년) 감독_팽삼원

감히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에 ‘대신에’와 ‘만약에’는 없습니다. 중국 고사(故事)는 ‘모원단장(母猿斷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했지만, 그 어미가 아니고는 진정으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들여다보고 나누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이와 어미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실종 아이의 이야기는 대부분 실화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그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하나 ‘모원단장’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들> 역시 유괴로 사라진 두 살 난 아이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레이저관(유덕화 분)은 집을 떠나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때론 노숙을 하면서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인쇄한 깃발을 달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길에 있어야 아들한테 덜 미안하고, 그 애가 어디 있든 아빠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손자를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어머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내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길 위의 날들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네 살 때 유괴되었고, 양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 쟁쇠이(정백연 분)는 기억이 없으니 꿈에서라도 태어난 곳과 엄마를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세상에 대고 외칠 수 있지만, 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죽을

까 걱정했는데, 크고 나니까 내가 찾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나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을 수 있느냐.”는 쟁쇠이와 “세상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싶은 부모는 없다.”는 레이저관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마음을 위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함께 부모와 아들 찾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쟁쇠이가 새롭게 기억해낸 ‘한 마을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유괴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공유한 인터넷과 제보의 힘으로 친부모를 만납니다.

모든 잃어버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해피엔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이저관은 다시 오토바이에 깃발을 달고 길을 떠납니다. 유괴로 18개월 된 딸을 잃어버린 젊은 엄마는 한 청년의 신고로 경찰이 유괴범을 잡고 아이를 되찾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길에서 만난 승려는 레이저관의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살아있나요?”라는 물음에 부처님의 ‘인연’이라는 화두로 답을 대신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서 있다.(이사 49장)’가 아닐까요. 영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귀강탕은 7년 후인 2021년 7월 기적처럼 아들을 찾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레이저관이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쓴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가 세상 모든 실종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현실로 찾아오기를.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헌금으로 환산하여 본당 봉헌일(9월 26일)에 봉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의: 02)727-226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오늘(9월 26일)은 '이민의 날'입니다

'제107차 이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9월 10일 자)

성명	전임지	새임지
주호식 신부	중앙동 본당 선교담당사제	도봉동 본당 주임

10월 3일(일)은 '군인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 바티칸뉴스 카카오톡 채널

바티칸뉴스 한국어 페이지 ⇨



교구청일림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0월6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128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9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비현 본당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오후 7시(유튜브→'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9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이주민

성구: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루카 10,9) /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이주사목위원회 / 문의: 02)924-9970

서울시교우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신앙대회(사목국 직장사목팀)

내용: 희년 및 힐링 특강과 이벤트, 장엄미사

대상: 시청 및 자치구와 공사공단 가톨릭직원(퇴직자) 및 가족 / 유튜브 실시간 방송

때, 곳: 11월13일(토) 13시~17시, 중앙구청 대강당

문의(신청): 02)2094-2232 중앙구청 교우회

사목국 '성서못자리' 온라인 성서못자리 강좌안내

접수기간: 10월3일(일)까지 / 문의: 02)727-2379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온라인 성서못자리 강좌(에드워드 플랫폼 사용)

수강기간: 12월31일까지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 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

에 접속하여,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에드워드

강의실 링크와 ID/PW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2022학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花요일아침예술학교'는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미술심화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 '각종학교'입니다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급,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재능이 있는 어려운 환경의 중학교 졸업예정(검정고시합격)자

원서접수: 10월11일(월)~11월1일(월)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 www.flowerdaymorning.com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1년 영성심리이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or.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도보순례 신청 및 시복시성 기원미사 안내

1)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순례 신청 안내

때: 10월19일(화) · 10월23일(토)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도보 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9월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문의: 02)2269-0413

2) 시복시성 기원미사

때: 9월28일(화) 오전 11시(166회)

곳: 서소문 밖 네흘레리 순교성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9월 시복시성 기원미사는 명절 연휴 관계로 네 번째 화요일에 봉헌합니다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설립 60주년 기념전: 1, 2 전시실

여섯번째 '학교밖 청소년 사진일기': 3전시실

전시일정: 9월29일(수)~10월4일(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온라인 피정

주제: 사별아픔에 대한 마음 회복의 여정

때: 10월9일(토)~10일(일), 10월21일(목)~22일(금)

지도: 이창영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문의: 02)318-3079 한마음자살예방센터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영양팀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조리업무) 0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http://songsin.catholic.ac.kr>)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자부 직원 모집

분야: 사무직 0명, 노무직 0명(조리 0명·경비 0명), 전교기구 0명 / 10월29일(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 이메일

문의: 주교회의(mano@cbck.or.kr)·전교기구(pmsk@pmsk.net)

서원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873-7900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회계업무, 컴퓨터 활용(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30일까지 우편(우 08781,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6길 1)·방문 접수 / 1차(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재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10월10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성체초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초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0월2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명동) 205-3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10월8일~11일, 10월22일~25일, 11월5일~8일, 11월19일~22일, 12월3일~6일, 12월10일~13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4차	10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제95차	11월5일(금)~13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10월2일~5일, 10월15일~18일 11월6일~9일, 11월14일~17일
자연순례 피정	10월8일~10일, 10월21일~23일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존리 대표의 '경제독립으로 가는 길'
 강사: 존리 대표(메리츠자산운용) / 선착순 전화 접수
 때, 곳: 9월30일(목) 14시, 가톨릭회관(명동) 1층 강당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온라인 회복 성경여정 '성경 한 권으로 보자'
 때: 10월5일부터 매주(화) 총40주, 낮간의 14시·
 밤간의 22시 중 선택 /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터회)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2022학년도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18일(월)~29일(금) / 전형일: 11월19일(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포함), 합창지휘 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5일(화)부터 10주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화상 교육·내면의 아이 회복(서울대교구 사목상담)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때: 10월8일~12월31일 매주(금) 오후 8시~9시

ENTS(영어성경) on Zoom
 주제: 복음서 속 여성들과의 만남 / 회비: 3만원
 강사: 안 페트릭 신부 / Zoom: ents.or.kr
 때: 9월28일~11월30일 매주(화) 19시~20시30분
 문의: 02)953-061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람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0월2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9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9월29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1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7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매월 넷째주(일) 9월26일·10월24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나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외수녀회)

요나 성당 수련원
 대천해수욕장 성당(요나 성당)이 수련원 건물 리모델링
 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자연을 감상하면
 서 하느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시길 바랍니다 / www.yonaresort.com-요나성당 검색
 숙박 문의·예약: 041)934-7758 요나 성당 사무실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중
 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제27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추천 안내
 추천부문: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대상), 모범
 근로자상 후보 / 추천: 추천서 양식(요청시 우송)에
 내용 기재 후 11월8일(월)까지 사무실로 송부
 시상식: 12월11일(토) 15시30분, 명동대성당
 문의: 02)755-7060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001호)

2022년 중림동약현성당 혼인 예식 추천 안내
 추천: 10월17일 오후 3시(안내 후 추천), 중림동약
 현성당 /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주의사항-2022년도 1월, 2월 혼인예식
 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2022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
 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주차 100대, 신도림
 역 2번 출구 셔틀버스 운행 가능), 소형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를 위한 작고 예쁜 경당(10~20명 참석 스
 물웨딩, 각종 가정 기념 미사(은혼·금혼·환갑·칠순)
 문의(접수): 02)833-9439 도림동성당 사무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양업문화교육원 성경 통독프로그램 / 문의: 010-2741-5652
 회비: 강좌당 학기당 2만원(심화반 교재 제공)

월요 통독반	9월 개강, 매주(월) 14시~17시(1년 과정) 카카오톡 활용 / 구약·신약
월요 통독 저녁반	9월 개강, 매주(월) 20시~22시(1년 과정) 카카오톡 활용 / 신약
목요 통독반	10월 개강, 매주(목) 14시~17시(1년 과정) 카카오톡 활용 / 구약·신약
성경 심화반	9월 개강, 매주(목) 20시~21시(1년 과정) Zoom 활용 / 신부 직접 지도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월3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장위동)	010-8563-6875
한국외방선교회	10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